

이마트 브랜드 녹차제품 농약 검출

식약청, 국산·수입산 녹차 87개 조사 ... 클로르헥나피르 기준치 초과

유명 마트에서 판매하는 녹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국산·수입산 녹차 87개 제품(36개 업소)에 대해 잔류농약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티젠에서 생산하는 신세계이마트 자체 브랜드 제품인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에서 농약 클로르헥나피르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9월5일 발표했다.

나머지 국산·수입산 86개 제품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국산 66품목과 수입 21품목 녹차에 대해 이피엔과 파라치온 등 66종의 농약의 잔류농도를 정밀조사한 결과, 신세계이마트 자체 브랜드상품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2009.7.13)에서 클로르헥나피르가 7ppm(100만분의 1)이 검출돼 기준치(3ppm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품에서 검출된 수준은 일반인의 녹차 섭취량 및 해당 성분의 독성을 고려해 위험도를 평가할 때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11일 발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식약청은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동일한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 살포시기, 생엽 수확시기, 기후 및 일기변화, 휴약 기간이 매년 달라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며 녹차 제조과정에서도 충분한 세척 여부, 가열처리 온도·시간, 저장기간 등에 따라서도 농약잔류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녹차의 잔류농약 검출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증폭됨에 따라 식약청과 농림부는 공동으로 녹차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자치단체와 협조해 농민들에게 농약 안전사용법을 지도하고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녹차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녹차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출고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5>